



인·터·뷰

포천시소년소녀합창단 단장 최치선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학교 순회공연 통해 합창 공유 기회 제공

2005년10월 창단해 현재 6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포천시소년소녀합창단 제9대 단장으로 2008년11월15일 취임한 최치선(사진) 단장은 “포천시소년소녀합창단이 좋은 합창단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을 이끌어온 방인구 지휘자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노인의 날, 시민의 날 행사 초청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천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합창단원들에게 미래의 꿈을 갖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합창단은 매주 토요일 오후시간을 이용해 연습해왔으며 2006년 하반기부터 박윤국 전 시장의 배려로 포천시청 3층 대강당을 연습실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창단에서는 단원들이 남을 배려하는 교육을 통해 나 혼자만의 소리가 아닌 화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초를 다지는 교육을 하는 셈이다. 내 소리만 내면 안된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된다.

한국어린이합창컨벤션 우수상 수상

포천시소년소녀합창단, 음악 실력 인정

포천시소년소녀합창단(단장 최치선, 지휘자 방인구)은 서울 코러스센터(조직원위원장 윤학원)가 주최한 제9회 한국어린이합창컨벤션에 참가해 우수상을 받았다.



포천시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코러스센터가 주최한 제9회 한국어린이합창컨벤션에 참가해 우수상을 받았다.

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아 음악 실력과 교육참여도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소년소녀합창단은 2005년

10월 창단해 그동안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쳐왔으며 어린이합창단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신춘문에 작품 이해와 분석

반월문학회, 제12차 문학특강 가져

반월문학회(회장 김영복)는 1월 24일 오후4시부터 안익수 시인을 강사로 초청해 2009년 신춘문에 작품 이해와 분석'을 주제로 제12차 문학특강을 실시했다.

신춘문예 시 당선작 '털피쉬'(양수덕)와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오늘은 달이 다 닳고'(민규), 2009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술방 배내의 시간'(김은주)을 이해하고 분석했다.

를 통해 작품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적 시는 본질은 바꾸지 않고 시의 틀을 바꾸는 변용을 다양하게 구사함으로써 표현을 낯설게 하는 것이 특징임을 지적하고 이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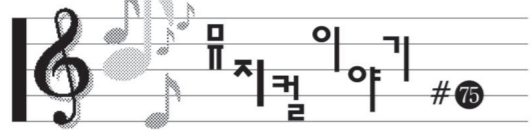
예/술/칼럼

밀레니엄 버그(Millennium bug) ②

자연은 인간에게 조건 없는 모방의 빌미를 수없이 제공해 왔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값없는 귀중한 선물이었으며 문명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뜨거운 습소리가 지나간 운동장에 어질러진 허탈감을 가지런히 줌과 달콤한 잠이 들어야 맛있는 아침이 기다릴 것이다.

한 현상이다. 열차는 종착역이 종점이지만 사람은 종착역이 시발역이자 또 다른 희망역이 된다.



학생들의 필독서와 영화버전, 그리고 <올리버!(Oliver!, 1968)>

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본 문제일 것이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능, 논술, 내신을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가 많으니 싫어해도 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학부모들이다.

준비해온 대사나 뮤지컬의 원작이 무엇이며 읽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의 입시생들이 원작소설이나 원작 뮤지컬을 읽거나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의 노래를 부르면서 공연을 보지도 않고 인터넷에 떠있는 짧은 동영상만 본 것으로 작품 전체를 다 본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1968년에 개봉되어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서 6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뮤지컬영화 <올리버!(Oliver!)>는 비록 영국 뮤지컬이지만 미국 브로드웨이에 입성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이후에 영화로 만들어져 더욱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다. 비록 뮤지컬 영화버전이고 특히 가족 뮤지컬이지만 구성이 매우 탄탄한 드라마틱한 뮤지컬인데 가법치 않은 영국 뮤지컬이 세계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를 강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올리버를 납치해서 지붕위로 탈출하려는 장면은 런던 브릿지에서 벌어지는 원작과 다르며 마지막 쇼트도 페긴(Fagin)과 도저(Dodger)의 어둡지 않은 유머러스한 퇴장으로 표현되었고 자막이 나오는 크로싱 크레디트는 경쾌한 노래에 실려 러스들의 노래와 춤으로 흥겹게 끝 맺고 있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61)

인평대군의 봉화낙산재구호(奉和樂善齋口號) 서리찬 높은하늘 거리기 울어오고 은하수 원연한데 받기운이 맑아이다.

옛 시인의 노래(詩人之時調) ①

이호민(李)의 시 봄바람 불어오는 한식절일세 봄 하늘 높이 높이 제비 날오네

유창의 시 창계변 백사상(滄溪邊 白沙上)에 혼자 서는 저 백로야 나의 먹은 뜻 넌들 아니 알아실야 풍진(風塵)을 슬하여 흠이아 내오 내오 달오라

유응부의 시 간밤에 부연바람 눈서리 치단 말까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지단 말까 하물며 뭇다 핀 꽃이야 일러무삼 하리오

초대 漢詩

追慕崔孤雲先生學德(추모최고운선생학덕)



先生氣品耀陽光(선생기품요양광) 文德崇高日月常(문덕숭고일월상) 선생님의 기품은 햇빛과 같이 빛나시고, 文德은 숭고하며 日月과 같이 오래되었습니다.

松園 李曉種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